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성희¹, 변은경^{2*}

¹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Sung Hee Park¹, Eun Kyung Byun^{2*}

¹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였고, 최종 408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24 \pm .49$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학년($t=2.687, p<.001$), 연령($F=3.187, p=.042$), 성적($F=18.551, p<.001$), 전공만족($F=61.347, p<.001$), 교우관계($F=28.2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421, p<.001$), 유머감각($r=.360, p<.001$), 자아탄력성($r=.41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t=-5.241, p<.001$), 성적($t=3.833, p<.001$), 전공만족($t=6.768, p<.001$), 교우관계($t=2.923, p=.014$), 감성지능($t=2.674, p=.008$), 자아탄력성($t=4.345,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7%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408 nursing students in B city from May 8, 2017 to May 12 and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nursing students was $3.24 \pm .4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with respect to grade($t=2.687, p<.001$), age($F=3.187, p=0.042$), academic grade($F=18.551, p<.001$), satisfaction with major($F=61.347, p<.001$), an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F=28.273, p<.0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emotional intelligence($r=0.421, p<.001$), humor sense($r=0.360, p<.001$), and ego resilience($r=0.418,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41.7%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caused by grade, academic scores, satisfaction with major,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creas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Adjustment to College life, Ego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2017교-38)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Byu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51-320-1459 email: bek@eagle.kit.ac.kr

Received July 12, 2017

Revised (1st August 16, 2017, 2nd September 4,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 사고 방식 미래 설계 및 대인관계 등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심리적, 사회적 가치관 수용, 자기탐색, 직업 선택, 결혼 등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적응상의 문제, 고민, 불안, 좌절 등을 이겨내는 내내심과 경험이 필요하다[1].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과 달리 다양한 전공 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의 습득, 국가고시 준비 등의 어려움이 있다[2,3]. 이러한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과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은 대학생활에서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직업인 및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중요하다[4].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학과를 선택하고,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5,6]. 적응의 어려움이나 부적응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불만족,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서와 사고에 빠지게 되고 [7,8], 이로 인해 학업중단 및 전공포기의 위기가 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통한 전문 간호사의 양성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보건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유능한 간호인력의 인적 자원 양성과 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된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9]으로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11].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유머를

고려할 수 있다. 유머는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복합적인 정신 자극으로 다양한 정의적, 인지적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치유에 힘을 발휘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12]. 유머감각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반응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13],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재미는 대학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14], 유머감각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5]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재로 유머감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성[16]으로 개인의 내·외부 문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 상황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말한다[17].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환경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며,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도와[18] 대학생활적응에 주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확인되었다 [19-22]. 자아탄력성을 높임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감성지능이 확인되었다[23],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수로[24] 학생이 대학생활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긍정적 감정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유머감각이 확인되었는데[5],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대학생 시기가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자 이후의 사회생활적응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짐으로 대학생활 1, 2학년 시기에 학과 중도포기나 전공포기의 파급적 영향

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한 4년제 학제로 운영되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 1, 2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연구 보조 요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보조 요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

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변수 12개를 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8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420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0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감정 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9]. Wong과 Law[9]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Jung[2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 4개 영역으로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및 감성활용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3.2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유머를 인지하고 스스로 즐기며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26]으로 Thorson과 Powell[27]이 개발한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를 Lee와 Cho[28]가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머감각 척도는 유머생성 12문항, 유머에 대한 선호도 8문항으로, 총 2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였다.

2.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인에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29]으로 Block과 Kremen[3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scale, ER)를 Yoo와 Shim[31]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 이었고, Yoo와 Shim[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7$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였다.

2.3.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으로[32], Baker와 siryk[33]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바탕으로 Lee[34]가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5가지이다. 각 하위 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가능한 최소 점수는 25점이고 최대 점수는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을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여자가 379명(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207명(49.3%), 2학년 201명(50.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336명(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무교 247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집이 25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보통이 209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223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는 만족이 243명(59.6%)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 학년($t=22.582, p<.001$), 연령($F=3.187, p=.042$), 성적($F=18.551, p<.001$), 전공만족($F=61.347, p<.001$), 교우관계($F=28.2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령은 21세 이하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적에서는 상과 중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에서 연령($t=3.881, p=.021$), 성적($F=8.527, p<.001$), 전공만족($F=19.365, p<.001$), 교우관계($F=30.99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령은 21세 이하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적에서는 상과 중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의 차이에서 연령($F=6.373, p=.002$), 성적($F=4.702, p=.010$), 전공만족($F=14.624, p<.001$), 교우관계($F=21.1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령은 21세 이하, 22-24세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적에서는 상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서 연령($F=5.301, p=.005$), 주거형태($F=2.788, p=.040$), 성적($F=3.051, p=.048$), 전공만족($F=9.872, p<.001$), 교우관계($F=22.9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전공만족은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Differ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djustment to College Life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Gender	Male	29	7.1	3.39±.50	2.687 (.102)	3.56±.40	.118 (.732)	3.51±.60	.003 (.957)	2.96±.34	.687 (.408)
	Female	379	92.9	3.23±.49	-	3.59±.48	-	3.50±.47	-	2.90±.39	-
Grade	1st	207	49.3	3.55±.48	2.613 (.107)	3.35±.49	2.613 (.107)	3.50±.50	.004 (.952)	2.88±.39	1.050 (.306)
	2nd	201	50.7	3.63±.46	-	3.13±.45	-	3.51±.45	-	2.92±.38	-
Age (years)	≤21 ^a	336	82.4	3.26±.50	3.187 (.042) a>c	3.61±.47	3.881 (.021) a>c	3.53±.47	6.373 (.002) a,b>c	2.92±.39	5.301 (.005) -
	22-24 ^b	50	12.3	3.24±.41		3.61±.49		3.50±.47		2.89±.33	
	≥25 ^c	22	5.4	2.99±.46		3.32±.42		3.16±.47		2.65±.42	
Religion	None	247	60.5	3.24±.49	2.315 (.057) -	3.57±.46	1.696 (.150) -	3.49±.50	.231 (.921) -	2.88±.38	1.991 (.095) -
	Protestantism	70	17.2	3.28±.46		3.58±.49		3.53±.48		2.92±.38	
	Catholicism	30	7.4	3.24±.44		3.75±.52		3.56±.51		2.98±.40	
	Buddhism	58	14.2	3.18±.53		3.59±.45		3.49±.37		2.93±.39	
	Others	3	0.7	4.01±.40		4.04±.53		3.63±.15		3.41±.30	
Residential type	Home	256	62.7	3.28±.48	2.131 (.096) -	3.57±.45	1.920 (.126) -	3.49±.45	1.533 (.205) -	2.89±.37	2.788 (.040) -
	Dormitory	118	28.9	3.20±.51		3.66±.51		3.57±.53		2.95±.41	
	Self boarding	20	4.9	3.11±.24		3.67±.35		3.48±.52		2.99±.29	
	Others	14	3.4	3.05±.49		3.40±.58		3.31±.37		2.66±.44	
Academic grade	High ^a	70	17.2	3.38±.50	18.551 (<.001) a,b>c	3.76±.43	8.527 (<.001) a,b>c	3.65±.47	4.702 (.010) a>c	2.96±.41	3.051 (.048) -
	Middle ^b	209	51.2	3.32±.45		3.61±.45		3.50±.47		2.92±.36	
	Low ^c	129	31.6	3.04±.47		3.48±.50		3.43±.48		2.83±.41	
Satisfaction on major	Good ^a	223	54.7	3.46±.43	61.347 (<.001) a>b,c	3.71±.42	19.365 (<.001) a>b,c	3.59±.44	14.624 (<.001) a>b>c	2.97±.37	9.872 (<.001) a>b>c
	Moderate ^b	167	40.9	3.00±.41		3.47±.48		3.43±.47		2.84±.38	
	Bad ^c	18	4.4	2.90±.51		3.24±.51		3.06±.52		2.64±.47	
Relationship with colleague	Good ^a	243	59.6	3.38±.44	28.273 (<.001) a>b,c	3.72±.44	30.997 (<.001) a>b>c	3.62±.44	21.152 (<.001) a>b,c	3.00±.38	22.993 (<.001) a>b,c
	Moderate ^b	158	38.7	3.05±.48		3.42±.44		3.36±.47		2.78±.34	
	Bad ^c	7	1.7	2.75±.43		2.90±.28		2.94±.53		2.40±.35	

3.2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은 3.59±.47점, 유머감각은 3.50±.48점, 자아탄력성은 3.43±.50점, 대학생활적응은 3.24±.49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421, p<.001), 유머감각(r=.360,

p<.001), 자아탄력성(r=.41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r=.567, p<.001), 유머감각(r=.50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유머감각은 감성지능(r=.55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M±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3.59±.47	2.25	5.00
Humor sense	3.50±.48	1.85	5.00
Ego-Resilience	3.43±.50	1.96	4.78
adjustment to college life	3.24±.49	1.88	4.6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Emotion intelligence r(p)	Humor sense r(p)	Ego resilience r(p)	Adjustment to college lif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Humor sense	.553 (<.001)	1		
Ego resilience	.567 (<.001)	.508 (<.001)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21 (<.001)	.360 (<.001)	.418 (<.001)	1

3.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나타낸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1학년=0, 2학년=1), 연령(21세 이하=0, 22세 이상=1), 성적(상=0, 중 이하=1), 전공만족(보통 이하=0, 만족=1), 교우관계(보통 이하=0, 만족=1)를 가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에서도 공차한계가 .615-.940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6-1.76으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만족하였고($F=37.433, p<.001$), 대학생활적응의 설명력은 41.7%였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년($t=-5.241, p<.001$), 성적($t=3.833, p<.001$), 전공만족($t=6.768, p<.001$), 교우관계($t=2.923, p=.014$), 감성지능($t=2.674, p=.008$), 자아탄력성($t=4.345,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of Influencing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615	.180		8.979	<.001
Grade*	-.197	.038	-.202	-5.241	<.001
Age*	-.026	.049	-.020	-.531	.596
Academic grade*	.157	.041	.150	3.833	<.001

Satisfaction on major*	.270	.040	.274	6.768	<.001
Relationship with colleague*	.120	.041	.121	2.923	.004
Emotional intelligence	.142	.053	.137	2.674	.008
Humor sense	.090	.049	.087	1.830	.068
Ego resilience	.265	.061	.210	4.345	<.001
$F=37.433(p<.001)$ Adj. $R^2=.417$					

*Dummy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3.24\pm.49$ 점으로 나타나 간호학과 1-4학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 Kwon, Park[22]의 연구에서 3.12점, 서울의 4학년 대상으로 한 Lee[34]의 연구에서 3.45점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간호학과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학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짐으로 대학생활 1, 2학년 시기부터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20] 연구결과를 통해 저학년부터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차이에서 학년, 연령, 성적, 전공만족,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 동아리활동, 경제상태,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9], 학년, 종교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1], 경제수준, 건강상태,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2]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1, 2학년 동안 학교적응 시에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 적응을 높이고, 학교와 학과의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므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이 감성지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20]와 유사하고, 대학생활적응이 유머감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5]와 유사하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이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20]와도 유사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성적, 전공만족, 교우관계,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적 태도, 연령, 성별, 전공만족, 학업성취도, 자신감, 감정조절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21]와 대인관계, 부모와의 동거,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35]와는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전공만족, 학교성적이 영향을 미친 결과[36],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23]와는 유사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학생활에서 준비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감성지능과 함께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학습을 증진되는 역동적인 요인 [36]이므로 학과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머감각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머감각이 증진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져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7]를 통해 유머감각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머를 통해 조절하며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유머감각도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를 보여 유머감각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적, 전공만족, 교우관계,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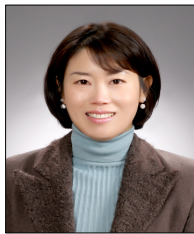
- [1] J. N. Sohn,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16, no. 3, pp. 267-275, 2007.
- [2]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 261-268, 2012.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2.19.2.261>
- [3] K. S. Han, G. M. Kim, "Comparison to self 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78-84, 2007.
- [4] W. H. Moon, K. S. Chung, M. J. Kim, "Mental health, stress, coping abili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9, no. 3, pp. 78-84, 20012.
- [5]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6]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7]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8] K. O. Hong, H. W.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0, no. 1, pp. 69-81, 2009.
- [9]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vol. 1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0] K. J. Ji, J. Y. Yu, "A study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 65-660, 2013.
- [11] R. Fernandez, Y. Salamonson, R. Griffith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1, pp. 3485-3492, 2012.
DOI: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2.04199.x>
- [12] P. Johnson, "The use of humor and its influences on spirituality and coping in breast cancer survivors", *Oncology Nursing Forum*, vol. 29, pp. 691-695, 2002.
DOI: <https://doi.org/10.1188/02.ONF.691-695>
- [13] E. Y. Hong, "The mediating effect of hum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pp. 558-568,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58>
- [14] E. I. Jeong, "The effects of interest and flow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4, pp. 77-99, 2012.
- [15]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 3, pp. 301-313,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3.301>
- [16] M. K. Hyoung, S. T. Hwang, "A validity study on ego resilience scale and ego control scale of California Child Q-set(CCQ)",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0, no. 2, pp. 345-358, 2001.
- [17]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40-250, 2009.
- [18] Y. J. Lee, H. Y. Min, Y. M.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5, no. 4, pp. 125-144, 2004.
- [19]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267>
- [20]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21]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395-403,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 [22] H. G. Son, S. H. Kwon, H. J. Park,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636-646,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5.636>
- [23]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4]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0.355>
- [25]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007.
- [26] G. S. Lee, S. W. Lee,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ense of humor on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level",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18, pp. 15-22, 2009.
- [27] J. A. Thorson, F. C. Powe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Psychodynamics and Psychopathology*, vol. 49, no. 1, pp. 13-23, 1933.
- [28] J. S. Lee, A. M. Cho,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6, pp. 13-23, 2006.
- [29] C. L. Jew, K. E. Green, J. Krog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32, no. 2, pp. 75-89, 1991.
- [30]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31]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32]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3, pp. 589-607, 2008.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33]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34]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9.
- [35] H. S. Song, E. S. Na, Y. H. Jeon, K. I. Ju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23, no. 1, pp. 72-81, 2016.
DOI: <http://dx.doi.org/10.21086/ksles.2016.03.23.1.72>
- [36]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44/jkasne.2015.21.2.182>
- [37]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571-57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

박 성 희(Sung-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5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학, 노인, 건강증진

변 은 경(Eun-Kyun Byu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